

끊임없는 자기개발로 포장산업 인재될 터

송기웅 / (주)유상 생산관리 사원

(사)한국포장협회(회장 윤영욱)가 지난 해 9월 10일부터 12월 11일까지 총 11주간 진행한 제 18기 포장기술관리사(Packaging Professional) 통신편교육에서 (주)유상 송기웅 사원이 총점 1백점 만점에 94.9점을 획득, 67명 수료자 가운데 최고 성적으로 수료했다.

“뜻밖의 좋은 성적에 놀랐지만 그동안의 노력에 대한 결과가 좋게 나와 기쁩니다. 우선 새로운 도전의 기회를 열어주신 유상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뒤에서 힘이 되어준 가족에게 감사의 말을 전합니다.”

송기웅 씨는 “합격의 기쁨도 크지만 많이 부족한 점을 채우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소감을 전했다.

현재 유상 생산관리 팀에 근무하면서 연포장재의 생산계획수립 및 생산관리업무에 주력하고 있는 그는 직원들의 능력과 자질향상을 위해서는 투자를 아끼지 않는 회사 방침과 포장인으로써 한걸음 나아가기 위해 포장기술관리사 교육을 신청했다.

11주간의 교육기간 동안, 포장의 광대한 분야를 공부하기에는 쉽지 않았지만 주위의 격려에



교육기간 동안 별 문제없이 임할 수 있었다는 송기웅 씨.

“처음 교육을 시작했을 때는 의욕이 넘쳐 인터넷 및 참고서적을 뒤지며 열심히 하였으나 아무래도 회사의 업무와 병행하다 보니 시간에 많이 쫓겼던 것 같아 조금 아쉽습니다.”

그는 포장기술관리사 통신편교육 기간

은 끝났지만 앞으로도 틈틈이 교재를 정독해서 보다 많은 내용을 습득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송기웅 씨는 포장기술관리사 교육은 새로운 경험이었다고 말한다. “향후 온오프라인(on/off-line) 병행 교육과 함께 관련분야 종사자 간의 커뮤니티(의문점 해소 및 정보공유 목적) 카페나 모임이 마련되어 보다 효과적이며 폭넓은 교육이 되길 바랍니다.”

포장기술관리사의 자격 획득을 계기로 포장인으로서 한걸음 나아가는 계기가 됐다는 그는 끊임없는 자기개발로 포장산업에 인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기회를 만들어 주신 유상의 모든 분께 감사드린다는 송기웅 씨는 2013년도에는 포장산업이 한층 더 발전하는 해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